

## “광주 1000만 관광객 프로젝트 ... 대선공약으로” ‘양림동산의 꿈’ 실행 계획 나왔다

기독교 유적·근대 유산·문화전당·광주천 등 활용  
총사업비 1조2800억 ... 경제문화선교 관광지원화

“1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자.” 양림동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하나로 묶어 광주를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창립한 (사)양림동산의 꿈(이사장 김혁중 광주대 총장)이 8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

‘양림동산의 꿈’이 최근 남구관광청과 함께 만든 ‘경제문화선교 관광지원화 조성계획(안)’을 양림동 일대 기독교 선교·순교 유적, 근대 문화유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천 등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총사업비는 1조2800억원 규모로, ‘양림동산의 꿈’은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해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추진되며, 양림동 일원에 산재한 역사·문화 자원을 결합하고 선교 유적을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다. 또한 1000만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도 염두에 두고 있다.

**8대 실행 계획**

- ① 역사문화길 조성
- ② 광주근대역사관 건립
- ③ 예술인촌 조성
- ④ 문화재 개방
- ⑤ 기독교성지 조성
- ⑥ 기독교 순교로트 개발
- ⑦ 제2의 예루살렘 성지화
- ⑧ 관광객 1000만 환경 조성

**양림동산의 꿈**  
광주 근대역사의 터전인 양림동, 무등산, 문화전당을 비롯한 지역 문화·자연자원을 개발·보존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들 자원을 지역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도 있다. 지역 학계와 경제계, 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반시설 확충’, ‘문화시설 확충’, ‘광주의 예루살렘 조성’, ‘찾아오는 광주’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역사문화길 조성, 광주근대역사관 건립, 예술인촌 조성, 문화재 개방, 기독교성지 조성, 기독교 순교로트 개발, 세계 제2의 예루살렘 성지화, 관광객 1000만 유치환경조성 등 8대 과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엔 예산 중 일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교섭하고 있다. ‘양림동산의 꿈’은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TF팀을 구성해 과제를 수행한다. 김혁중 이사장, 양공선수 기보배, 문정현 전 광주변호사회장 등 교육·체육·경

제·법조·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사(25명)들과 고문·자문위원(170여명)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김혁중 이사장은 “지역에서 단독으로 실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 공약에 포함시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을 통해 광주를 홍보하고 광주시민 누구나 잘사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ymh@kwangju.co.kr



광주 고려인마을 주민들 “대한독립 만세” 광주고려인마을 주민들이 1일 제98주년 3·1절을 맞아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하남제2어린이공원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 광산구에 위치한 고려인마을은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독립운동가와 동포들의 후손이 거주하는 곳으로, 3000여명의 고려인들이 모여 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 두동강 난 3·1절

### 박근혜 탄핵 선고 앞두고 서울 도심 대규모 찬·반 집회

98주년 3·1절인 1일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시간차를 두고 각각 대규모로 열렸다.

지난 1949년 3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68년 만에 진보와 보수 진영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여야의원들도 대거 찬반 집회에 직접해 3·1절이 두 쪽으로 갈린 것이다. <관련기사 2·4·5·6면>

이날 3·1절 행사는 국경농담 사태 특별검사팀 수사가 전날 종료됐고,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진보와 보수가 맞서 긴장이 고조됐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박근혜퇴진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퇴진행동은 오후 7시에 본 집회를 마치고,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사거리부터 청와대 남쪽 100m 지점까지 행진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3·1절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를 재연하는 행사를 여는 한편 참석자들에게는 태극기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상징인 노란리본을 달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오후 2시 도심 일대에서 ‘제15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탄기국은 광화문 광장 남쪽 세종대문사거리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동쪽으로 동대문, 남쪽으로 서울역까지 걸쳐 집회를 열

었다. 이어 집회가 끝난 후 청와대와 헌재 방안을 포함한 5개 경로로 행진했다. 태극기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 행진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선주자와 여야의원들도 집회에 참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과 야당 의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윤상현·조원진·김진태·박대출·이우현·백승주·전희경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 7명과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광화문 집회에, 대선출마를 준비 중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청계광장 집회에 각각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이날 집회 현장에 경비병력 202개 중대(약 1만6000명)와 차벽을 투입해 양측 분리하고 질서 유지에 주력했다.

/연합뉴스

## 사드, 조기대선 정국 쟁점으로

롯데축이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기로 확정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 안보포럼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나서 조기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가 줄속 추진과 주민의 반발을 달기 위해 어린이야 팔 비틀은 것 같은 부끄러운 결과”라며 “한미국방장관 회담 당시 대선 전 사드 배치를 합의했다는 보도는 차기정부 재논의를 주장해온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과 배치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도를 넘는 보복조치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외교문제를 외교로 풀지않고 경제·사회·문화 등 민간영역으로 확장한다면

민중당 “차기 정부로 넘겨라” 청와대 “배치 차질없이 추진”

대국답지 않은 태도라고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며 “관영매체를 통한 보복 경고는 한중간 현안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중국당국의 자제와 인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한국 시간)부터 3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청와대는 “양측은 사드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창립 46주년 TTG**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16년 연속수상/명예의 전당 입성  
TTG(Travel Trade Gazette) : 전세계 관광산업 전문가 및 기자단이 선정하는 관광업계의 노벨상

### 5월 황금연휴에 떠나는 일본 북해도 벚꽃여행

**무안 출발**

**동반자 15만원 할인 프로모션!**

3월 17일까지 예약자 한정/예약후 3일 이내 완납기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30	5/1	2	3	4	5	6
출발	근로자의 날	연차	석가탄신일	출발	어린이날	
7	8	9	10	11	12	13

[2016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

[추가경비 없는 풍격여행!]  
[ALL포함/풍격] 북해도 핵심일주 4일  
1,699,000부터 [선택관광 없음]

[협곡시대 소문코 관광 포함!]  
[정통] 북해도 핵심일주+소문코 4일  
1,499,000부터 [선택관광 없음]

[세계3대 야경 하코다테 포함!]  
[정통] 북해도 핵심일주+하코다테 4일  
1,549,000부터 [선택관광 없음]

[일출 출발] 무안 도착 ▶ 알뜰하게 떠나는 북해도 여행! ▶  
[일출] 북해도 핵심일주 4일  
1,299,000부터 [선택관광 없음]

홋카이도 지역 한정만약 제공  
사프로 클래식 (상인한정 350m)

기념품 증정  
오르골당 5%할인권 OR 기념품 핸드폰줄

3대개 무제한 제공  
탈게, 대개, 왕개 무제한 제공

인솔자 동행  
배터리인솔자 동행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새벽에 떠나  
새벽에 오는 막대한 여행  
5:10 출발 / 1:10 도착  
\*입출성품 출발시간은 다릅니다.

대한항공 직항  
국적이 대한항공 이용으로 편안한 여행

은신록 체험  
전 일정 은신록 체험

여행경비 입금은 고객센터로만 가능합니다.